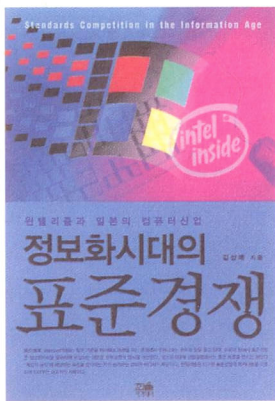


# 정보화 시대의 치열한 표준 선점 경쟁 분석

김상배 (외교 85) 지음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 인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아카데미, 2007)



지금의 사회를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표준경쟁'이라는 용어, 더 나아가 부제에 나오는 '인텔리즘'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면 일반 독자는 "아!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책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초보 수준의 사용자는 범접하지 못할 책이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물론 컴퓨터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이 용어들의 이해 여부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저자는 우선 '표준경쟁'이란 용어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표준(Standard, 標準)의 의미는 '기성의 권위에 의해서 수립된 규칙' 혹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으로 독자는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 사용했던 타자기에도 일정한 형태의 자판표준이 존재하였고, 현재 컴퓨터의 키보드

에도 표준이 존재한다. 국가별로 혹은 생산기업별로 다른 키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워질 것은 자명하고,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준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흔히 OS 혹은 윈도(Window)라고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작동 체계의 표준이 필요하다. 서로 표준이 다르다면, 생산한 자료와 문서가 서로 소통되지 못할 것은 자명하고 이로 인한 거래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의 기본 체계에 대한 표준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과 통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정책과 제도에서의 표준이 저자가 근본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은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  
저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보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경쟁이고, 이것은 가시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 정책, 사고 등이 종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문명의 표준, 정책의 표준, 제도의 표준, 사고의 표준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경쟁의 대표적 현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인텔리즘(Wintelism)이다. 인텔리즘이라는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인 윈도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인 인텔의 합성인 윈텔(Wintel)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는 윈도(Windows)와 인텔(Intel)이 자신들의 PC표준, 즉 윈텔 표준을 통해서 세계 컴퓨터 산업에 구축한 구조적 지배를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인텔리즘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지배력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컴퓨터 산업 전반의 구조 변동 와중에 등장한 산업조직이나 정부 정책 및 기타 제도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 책의 장점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과 이에 기초한 이론 틀을 통하여 풍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정보화시대에 들어오면서 왜 뒤처지게 되었는지, 정보화시대에서의 권력유자원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IT강국이라고 자처하는 한국의 앞날은 어떤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권한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는 개념과 이론 적용의 엄밀성, 풍부한 사례와 해석학 등의 측면에서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류석진 (정치 76,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